

광산구,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위한 그림책 제작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아동용 자원순환 그림책을 제작, 교육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그림책은 '지구는 응급 상황! 플라스틱을 줄여라!', '신비한 종이배출의 세계! 같이 탐험해볼래요?' 총 2종으로 제작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종이팩·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

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의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한편, 스티커 놀이, 재활용 퀴즈 등 활동지를 부록으로 넣어 효과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민성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산구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광산구분회, 광산구 청소년과·여성아동과가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현장에 그림책을 배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에선 이미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이 쓰레기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

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5월부터 자원순환해설사들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등 총 33개 학교 1만1942명이 신청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유치원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동구, 아파트 공동체 미니 가이드북 발간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행복 도시 동구를 조성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파트공동체 미니가이드북 '동구 행복 아파트공동체 토크(talk talk), 첫걸음 시작하기'를 발간했다.

가이드북 발간은 은리동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인 ▲동구 아파트공동체 본격화와 보편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동구형 문화예술아파트 조성 ▲함께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파트 생활 문화운동 추진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이웃과 공간을 공유하고 공동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 가득 따뜻한 아파트 마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가이드북은 관내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보다 쉽게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공동체 활동 단계별 설명과 공동체 활동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1장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란 무엇인가, 아파트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소개, 2장은 공동체 활동의 준비·실행·평가 등 단계별 설명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방법을, 3장에서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공동체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장에서는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구를 포함한 타 지역 아파트공동체 우수 활동 사례를 ▲아파트 비전 커뮤니티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에너지절약·기후환경 녹색 아파트 ▲건강 아파트 ▲공유아파트 ▲소통 커뮤니티 ▲문화예술 커뮤니티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향후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아파트공동체 공감투어 교육'에서 교육 자료로 배포·활용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행정안전부 주관 아이디어 시범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지역 일자리·경제 활성화 분야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강좌인 '북평가든'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북평 가든 조성 ▲북평 가든 양성 ▲가든 발상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을 통해 텃밭관리·도시농업·밀키트 제작 등을 학습한 주민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고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북평가든'이 주민의 일상 속 배움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장소와 이용 현황, 참여 신청 등의 기능이 담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인 만큼 평생학습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발빠른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최근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관내 A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구청 제공

김이강 서구청장 준공 예정 아파트 현장 방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발빠른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최근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관내 A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A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크고 작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다수 발견돼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당선인 시절에도 이곳 현장을 방문해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후 진행 과정과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 하자 조치 상황과 향후 공정

계획을 보고 받고 입주예정자협의 회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 후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건설사 측에는 하자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공기업 취업생 위한 특별 멘토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달부터 두달간 공기업을 비롯해 회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현직 종사자로부터 취업 성공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듣는 '청년-현직자 외의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에 따르면 '청년-현직자 외의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종사자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간 만남을 통해 취업 준비과정에서부터 직무별 필요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기업을 비롯해 IT, 취업 플랫폼 회사의 현직 담당자가 취업 준비생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현장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및 일반 기업

취업을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구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IT분야 기업 공감미디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오는 20일부터 각 기관별로 직무에 대한 멘토링 및 취업 성공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만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남구 거주자와 남구 소재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를 우선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각 기관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남구청 혁신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ffnung10@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